

현대차,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만든다... 내년 상용화 추진

현대글로벌서비스, 한국선급 MOU PEMFC 활용해 시스템 패키지 개발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공략

현대자동차가 현대글로벌서비스, 한국선급과 손잡고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상용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7일 서울 을지로 현대중공업지주 본사에서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 이기동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패키지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차량에 적용 및 판매되고 있는 연료전지(PEMFC)를 활용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하고 선급 형식승인을 받아 2022년 하반기까지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



이기동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이 7일 현대중공업지주 본사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패키지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템 공급을 담당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서비스 전문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해당 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 제품화한다. 한국선급은 선급 규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의 승인 및 검사를 담당한다. 3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패키지를 상용화해 향후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기존에는 선박 제조사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단순 공급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협업을 통해 최초로 선박용 연료전지 추진 패

키 개발 및 상용화 협업을 추진, 선박시장에 주도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MOU는 현대차가 현대글로벌서비스, 한국선급과의 협력을 통해 연료전지 선박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당사의 오랜 경험과 역량이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결합되어 친환경 선박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동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는 "최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3사의 이번 협업은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실제 상업 운전이 가능한 선박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수소 경제 시장과 관련된 친환경 선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위니아담체

둘레바람 아트에디션 출시

위니아담체는 8일 둘레바람 에어컨아트에디션(사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떠오르는 신진 일러스트레이터 3인의 작품을 에어컨 바람창 전면면에 적용한 모델이다.

위니아담체는 아트에디션이 공간에 개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니아담체는 웨이브 에어컨 컬러 에디션을 통해 컬러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위니아담체에 따르면 아트에디션에는 문민지 작가, 김샘 작가, 싸비노 작가 등이 참여했다. /한창대 수습기자 cd1@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미니 레트로철학 담긴 귀여운 외모... 숨겨진 야성미에 '깜놀'

자동차 시승기

미니 '뉴 미니 3도어 JCW'

최고출력 231마력, 토크 32.63kg·m 3개 주행모드 지원, 운전 즐거움 ↑

미니는 레트로에 진심이다. 좁은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은 철학으로 시간이 지나도 남들과는 다른, 늘 미니같은 차를 선사한다.

새로 내놓은 뉴 미니 패밀리 역시 고집스럽다. 더욱 미니 같은 디자인과 성능은 물론이고,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색다른 마케팅도 이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시승 코스는 서울 중심에 있는 스타벅스 별다방점에서 파주 야당 드라이브 스텝까지로 정해졌다. 도심 속을 가로질러 고속도로를 건너 한가한 지방 스타벅스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디자인은 미니다. 헤드라이트를 동그렇게 만들어 레트로스러움을 더했고, 측면에는 에어 인테이크를 추가해



뉴 미니 패밀리

/미니코리아

더 간결하고 세련된 분위기도 낸다. 실내도 역시 미니다. 옛 미니와 같은 토글식 스위치와 고전적 디자인 송풍구. 그래도 8.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기본 장착에 크롬 대신 다른 소재 마감, 그리고 더 은은한 엠비언트 라이트가 신형 모델임을 알려준다.

시동을 걸면 더 미니다워진다. 작지만 작지 않은. 시승 차량은 뉴 미니 3도어 JCW 론치팩. 2리터 4기통 디젤 트윈 파워 터보 엔진으로 최고출력 231마력에 최대토크 32.63kg·m을 내는 고성능 모델이다. 그러령 거리는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진동으로 길보기와는

다른 미니의 야성미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에 들어오면 이런 느낌은 배가 된다. 다소 투박하지만 즐기 시작하면 잊을 수 없다는 승차감. 교외를 상상하며 자유로에서 가속페달을 밟으니 이미 마음만은 휴가다.

확연히 다른 주행 모드도 특징이다. 스포츠와 미디움, 그린 등 3가지가 있는데, 모드에 따라 주행 질감 차이가 상당히 크다. 조금 과장하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배기음에 머리가 아픈데, 그린 모드로 바꾸면 평범한 중형 세단도 부럽지 않을 정도다.

연비도 참 좋다. 공인연비로는 JC



미니 실내 모습.

/김재용기자

W도 복합연비가 11.4km/L이고, 다른 모델은 13.4km/L까지 올라간다.

미니답지 않은 부분도 새로 생겼다.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안전과 편의를 더욱 높여줄 수 있게 됐다.

단점은 당연히 미니라서 나온다. 생긴 것과는 달리 딱딱한 감쇠력과 시트. 답답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유압식 스티어링에서나 느낄만한 무거운 조향. 고성능 트림인 JCW긴 했지만 정말 생긴 것과는 딴판이다.

그래도 미니는 미니다. 작은 크기로 운전이 쉽고 편하다. 그러면서도 여느 고급 세단 못지 않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적재 공간도 넉넉하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오픈체인 프로젝트' ISO 인증

오픈소스 활용 역량 입증

삼성전자가 오픈소스 활용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오픈체인 프로젝트'의 표준 준수 기업으로 국제 인증(ISO/IEC 5230:2020)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리눅스 재단이 주도해 만든 역량 평가다. 오픈소스를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역량을 평가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한다.

평가 항목은 ▲사내 정책과 시스템의 적정성 ▲담당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사내 구성원의 교육 수행 여부 등에 대해 기준 충족 여부다.

삼성전자는 인증 획득을 통해 오픈소스 활용 역량을 인정받아 소프트웨어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디자인 크루 통해 미래고객 소통

LG전자가 Z세대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미래 고객 선점에 나섰다.

LG전자는 지난 4월부터 디자인크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대학생, 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래 고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 인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마

주할 때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인 디자인에 미래고객의 니즈와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 Z세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됐다.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16명이 참여한다. 서류와 필기, 면접 등 3단계를 통해 창의력과 논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39대 1 경쟁률을 거쳐 선발했으며, 다양한 전공으로 여러 관점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용 기자

SKB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

SK브로드밴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으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성과와 노력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제1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목은 'CONNECT TO THE FUTURE'이다. 회사의 미래 방향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의지를 담았다.

보고서는 SK브로드밴드의 주요 활동과 ESG 성과를 5개 섹션으로 구분했다. ▲새로운 도약을 시각화한 'Future Ahead' ▲지속가능경영 방향성과 ESG 추진 전략 및 체계를 담은 'Corporate Overview'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회사의 핵심 추진 활동을 소개한 'Shaping the Future' ▲ESG 데이터를 공시한 'ESG Report'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을 담은 'Appendix' 등으로 구분된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신제품 공개

다이슨은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오는 9월 정식 출시된다.

다이슨은 새로운 플라이어웨이 노즐이 반원 모양으로 머리 손질 시 긴 모발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짧은 잔머리는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감추는 코안다 효과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다이슨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과도한 열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만으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해진다.

다이슨의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신제품은 플라이어 노즐을 포함해 ▲스무딩 노즐 ▲스타일링 콘센트레이터 ▲디퓨저 ▲젠틀 드라이 노즐 등 5가지 스타일링 노즐이 제공된다. /한창대 수습기자